

경제



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삼각동 느티나무 셀프 스튜디오를 찾은 고객이 아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.
(느티나무 셀프 스튜디오 제공)

기름넣고 세차하고 사진찍기 '혼자서 척척'

셀프산업이 뜬다

"아기 모습을 직접 찍어주고 비
용도 절약할 수 있어 좋아요."

4일 오후 주부 관해숙(여·30·광
주시 북구 삼각동)씨는 7개월 된
아들에 성장앨범을 만들어 주기
위해 셀프 스튜디오를 매달 찾고
있다.

스튜디오 고객 늘어

셀프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용 디
지털 카메라를 대여하고 액자 1개
를 만드는데 비용은 7만5천원.
사진관에서 활영하고 액자를 만드
는 것보다 비용이 3분의 1이나 저
렴하다고 한다.

편씨는 "아이의 성장앨범을 만
들어 주고 싶어 시중 사진관을 찾
았더니 80만원이나 내라고 해서
엄두도 못 냈다"며 "셀프 스튜디
오는 부담이 덜해 자주 찾고 있다"
고 말했다.

경기 침체 영향으로 '실속파' 소
비자들이 늘면서 셀프 산업이 뜨
고 있다.

셀프 스튜디오는 고객들이 스튜
디오를 빌려 사진을 직접 찍는 곳
이다. 광주에는 북구 삼각동 '느티
나무 셀프 스튜디오'가 지난해 7월
처음 문을 열었다.

카메라 사용에 익숙한 젊은 부
모들이 직접 자녀의 백일·돌사진

촬영에 나서면서 스튜디오를 찾는
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.

'느티나무 셀프 스튜디오' 기현
숙 대표는 "지난해 말부터 예약과
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"며 "비용
도 저렴하지만 부모가 직접 자녀
의 사진을 찍어준다는데 의미를
두는 경우도 많다"고 말했다.

경기침체와 고유가 때문에 운전
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
도 인기다.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℥
당 30~50원 저렴해 가격 경쟁력
이 뛰어나기 때문이다.

한국주유소협회 광주·전남지회
에 따르면 3월 현재 광주지역 셀프
주유소는 모두 7곳. 지난해부터 본
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.

기름값 싸 이용객 급증

광주시 북구 평동에서 셀프
세차장을 운영하는 김영민 대표는
"'평일에는 30대, 주말에는 평균
150대가 세차를 하고 있다'며 '불
황 때문에 고객이 많이 늘고 있다'
고 말했다.

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.

국토해양부가 4일 발표한 전국 공
동주택 999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
에 따르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
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(3.2%) 증
가했고,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.9%

상승했다.

지난해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
기 여파로 평균 4.6% 하락했던 것을
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하락폭만큼 가
격이 상승해 2008년도 수준을 회복한
것이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코스피지수	1,618.20	(-4.24)
코스닥지수	507.59	(-2.04)
금리 (국고채 3년)	-4.08%	(-0.01)
원·달러 환율	1,144.60원	(-1.90)

※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

한양-남양 "수주戰 3라운드"

하의~신의 연도교 공사도 한양 '勝' ... 영산강 하구둑 2공구는 어디로?

전남도의 핵심사업인 '신안 다이아
몬드 제도'개발의 중심 구간인 신안
'하의~신의 간 연도교' 개설 공사를
주한양이 수주하면서 향후 이어질 영
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(2공구)의
수주전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.

최근 접차 격렬해지고 있는 한양과
남양간 수주전을 놓고 건설업체에서는
는 '출혈을 감수하겠다더러', '3차 수
주 대전(大戰)'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
여서 두 건설사간 불꽃튀는 수주 경
쟁의 결과에 귀추가 되고 있다.

농어촌공사는 4일 "영산강 하구둑
을 확장하고 교량 등을 설치하는 '영
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' 건
설 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오는 18
일 실시한다"고 밝혔다.

2공구는 2천52억원의 사업비가 책
정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·
2·3공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, 터키

(설계·시공 일괄입찰) 방식으로 진행
되며 설계능력평가(70%)와 가격 점
수(30%)를 합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.

한양과 남양건설은 영산강 살리기
사업 수주전과 '하의~신의 간 연도교'
개설 공사로 두 차례 맞붙은데 이어
같은 공구에서 3번째 재격돌하게 된
다. 앞서의 두차례 사업자 선정은 모
두 한양의 승리. 한양은 앞서 지난해
영산강 살리기 6공구도 남양을 제치
고 공사를 따냈다.

이번 공사에서 한양은 30%의 지분
으로 대우건설(30%), 한화건설
(10%), 금광기업(10%), 공영토건
(5%), 해동건설(5%), 동진건설
(5%), DK건설(5%) 등과 팀을 이뤘
고 남양건설은 50%의 지분을 갖고
동부건설(30%), 영진건설(5%), 청
호ENC(5%), 성원건설(5%), 새한종

합건설(5%)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
했다.

대규모 국책 사업으로, 영암호 배
수갑문(80m→410m)을 넓히고 교량
건설 공사 등이 포함되는 등 기술력
와 시공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
는 터키(설계·시공 일괄 진행) 공사
인데다 세차례나 격돌하다보니 자존
심 경쟁도 만만치 않아 수주 경쟁도
불꽃을 뿜기고 있다.

㈜한양은 영산강 6공구와 '하의~
신의 연도교'를 수주한 여세를 몰아
반드시 따낸다는 각오다. 자사가 주
진중인 서남해안 기업도시 내 공사
부지가 하구둑 개선사업에 포함돼 있
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
면, 남양건설은 더이상 '굴욕'적 배배
를 끄풀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
다.

/김지율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대학생 창업지원단 사업

조선대 등 15개대학 선정
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(청장 임
충식)은 4일 '대학생 창업지원단' 사
업에 참가할 대학으로 조선대, 연세대
등 1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.

대학생 창업지원단은 교내에 설치
돼 창업강좌, 창업동아리, 창업결진
대회 등 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하고
실제 창업에 나서는 대학생들과 투자
자를 연계해주는 사업도 펼친다.

중기청은 창업지원단 활동을 위해
대학당 연 7천만~8천만원의 예산을
지급할 방침이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명품 주얼리 디자인

삼성 지펠냉장고 시판

명품 주얼리 디자인을 채용
한 삼성 렉서리 프리미엄
냉장고 '지펠 마시모 주기'
'사진'가 삼성
광주공장에서
생산돼 본격
시판에 들어갔
다.

이 제품은 유리표면에 LED(발광
다이오드)를 디자인해 물이 빛나는
모습을 시각화한 '주얼리 라이팅
방식'이 적용됐다. 월간 소비전력도 31.
8kWh로 크게 줄었다. 블랙라벨과 골
드라벨 2개 모델로 출시되어 출고가
는 299만원. 또 스마트 가전 시대를
주도할 전략 제품인 '지펠 e-다이어
리'도 선보였다. 이 제품은 10인치
LCD 터치 스크린을 갖춰 메모, 일
정관리 및 인터넷 뉴스 보기 용도 등
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출고가는 249만
원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기아 스포티지R 출시 기념

G마켓과 공동 판촉 이벤트

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R 출시를
기념해 사전계약 기간에 G마켓과 함께
판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
혔다.

기아차는 G마켓 고객들을 대상으
로 '스포티지R 10만원 할인 쿠폰'을
제공하고, 스포티지R와 관련된 퀴즈
를 풀고 기대평을 쓴 고객을 대상으
로 추첨을 통해 G마켓 상품권과 무료
배송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전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3.8% ↑

엑스포 영향 4년째 올라

광주는 소폭 상승 그쳐

'2012 여수 세계박람회' 등의 호재
로 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
난해(3.2%)에 이어 올해도 3.8% 상
승했다. 광주는 0.2% 오르는데 그쳤
다. 지난해 사상 처음 4.6% 하락한 전
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4.9%
올라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.

국토해양부가 4일 발표한 전국 공
동주택 999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
에 따르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
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(3.2%) 증
가했고,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.9%



가했고,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.9%

상승했다.

쉼이 됐다.

국토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
홈페이지(www.mltm.go.kr)와
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
(안)을 공개,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광주 지난달 수입차 94대 ... 전년비 65% 증가

지난달 수입차 등록대수가 6천438
대로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불거진
수입차 안전성 논란에도 7개월 연속
상승세를 보였다.

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
에 따르면 2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¹
가 6천438대로 지난해 2월(3천663
대)에 비해 75.8% 증가했다. 광주에

달 586대가 등록돼 전월보다 32.9%
증가했다. 반면 메르세데스-벤츠와
폴크스바겐, BMW 등 유럽 브랜드들
은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.

광주지역에서는 메르세데스-벤츠
(17대), 혼다(15대), 폴크스바겐(14대),
BMW(12대), 아우디(10대)가 수입
차 시장을 주도했다. 도요타 렉서스
는 지난달 2대가 등록돼 지난해 12월
7대, 올해 1월 8대보다 크게 줄어들었
다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서는 94대가 등록돼 전년 동월(57대)
보다 64.9% 늘었다.

브랜드별로는 도요타 렉서스가 지
난달 173대 등록돼 전월에 비해 45.

9% 감소했고, 시장점유율도 2.69%
를 기록해 작년 2월(7.73%)보다 5.

04%포인트 떨어졌다. 도요타 브랜드
는 판매 대기 물량이 출고되면서 지난

달 586대가 등록돼 전월보다 32.9%
증가했다. 반면 메르세데스-벤츠와
폴크스바겐, BMW 등 유럽 브랜드들
은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.

광주지역에서는 메르세데스-벤츠
(17대), 혼다(15대), 폴크스바겐(14대),
BMW(12대), 아우디(10대)가 수입
차 시장을 주도했다. 도요타 렉서스
는 지난달 2대가 등록돼 지난해 12월
7대, 올해 1월 8대보다 크게 줄어들었
다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국토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
홈페이지(www.mltm.go.kr)와
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
(안)을 공개,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국토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
홈페이지(www.mltm.go.kr)와
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
(안)을 공개,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국토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
홈페이지(www.mltm.go.kr)와
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
(안)을 공개,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